



행복한 주거 공간을 창조하는 기업

국내 건설사의 위상을 높이는 SK건설

30년간 국내외 주택, 건축 사업을 펼치고 있는 SK건설의 경쟁력과 장기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에디터 | 김소진 · 자료, 사진 제공 | SK건설 홍보실



SK건설이 포스코건설과 함께 지은 분당파크뷰

SK 북한산시티

멕시코 까데레이타 프로젝트



1977 년 창업 아래 SK건설은 최신 공법과 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세계적인 종합 EC(Engineering & Construction)회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SK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SK VIEW',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SK Leader's View', 고급 빌라 'APELBAUM'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최첨단 시스템을 구비한 최고급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기획 제안형 PF 사업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5년 아산 배방 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의 PF 사업을 수주해 민간 부문의 주간사로서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인천 도화지구 개발 및 인천대 이전 사업에도 주간사로 참여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이는 SK건설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쌓아온 우수한 기술력과 대형 프로젝트 수행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공공 토목 사업 분야의 최강자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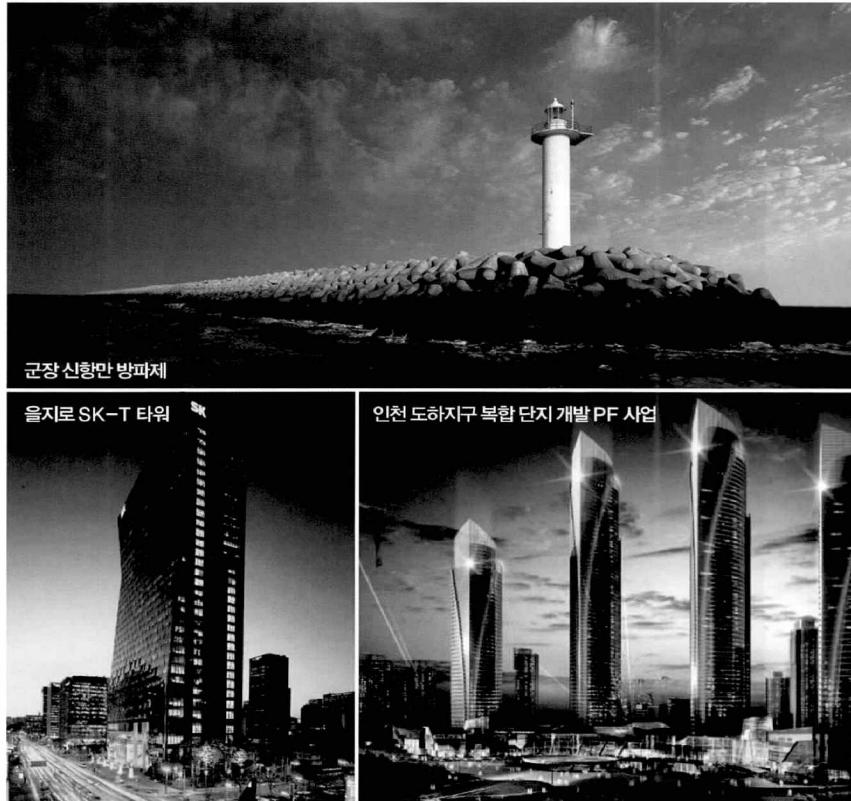
또한 SK건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로, 교량,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첨단 자동화 계측 시스템을 도입, 안전 시공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해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공공 토목 사업 분야의 최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무재해 공사 현장으로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최고 수준의 건설 관리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SK건설이 시공한 '군장신항만 북방파제'가 '올해의 토목 구조물'로 선정되는 등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도 해외에서 한국 건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등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 2005년 쿠웨이트에서 해외 단독 수주액 중 최고가인 1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6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태국 ATC 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 1월에도 쿠웨이트에서 12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주하는 등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1997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 공사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중동에서 한국 건설의 신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건설 'Challenge 2015' 중장기 전략 수립

이와 같이 SK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및 윤리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



군장신항만 방파제

울진로 SK-T 타워

인천 도하자구 복합 단지 개발 PF 사업

라 SK건설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 9월 'SK건설 자원봉사단'을 결성했고, 매주 양로원, 덕수궁, 창덕궁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로원 어르신 등 사회적 소외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SK건설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지양하고 매주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비타트 운동', '저소득층 주거 개선 봉사 활동' 등으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주체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SK건설은 'Challenge 2015'를 수립해 목표 이미지(To-be Image)를 구체화하고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정립했으며, 일류 기업(Top Tier)에 걸맞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과 중심주의 실행을 위한 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제품과 신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SK건설의 모든 구성원은 '신뢰, 열정, 진화'를 공유 가치(Shared Value)로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어 영구히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Business Partner), 회사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